

하나님의 마음

존 A. 쇼트 지음 / 이 우 진 옮김

Korean Edition

영광교회 출판부
1998년 10월 15일
100원

하나님의 마음

존 A. 쇼트 지음 / 이 우 진 옮김

Heart of God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목차

책머리에.....	5
서문.....	7
1. 사실 - 하나님의 사랑.....	2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 행동 - 하나님의 선물.....	37
“독생자를 주셨으니...”	
3. 약속 - 하나님의 약속.....	57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4. 영광 - 하나님의 영광.....	71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욘 7:17).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출판사(홍콩)가 이 책을 펴낸 본래 목적은
네 개의 큰 패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의 그림은 큰 패도를 축소한 것이다.

책머리에

중국에서는 흔히 “천안문 광장에 깔린 돌들 중 하나에까지 당신의 귀를 내려뜨려 거기다 대라.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천안문 광장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며, 바로 그 곳에서 개인과 집단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대규모의 결합을 이루어 중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의 어떤 곳이든지 천안문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중심지와 심장부로 각별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역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구절들에 다가가 당신의 귀를 내려뜨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성경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요 진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소리

를 생생히 듣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같이 좋아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모든 신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임

“복음을 증거함은 단순히 복음적 교리를 재미없게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지루한 말을 기계적으로 거듭 거듭 반복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란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 성경의 다함이 없는 보화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위대함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C. H. 매킨토쉬).

서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같은 출판사에서 구할 수 있다)이라는 책에서 그림과 함께 세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의 중심, 흔히들 사람의 ‘마음’이라 부르는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의 이와 같은 변화는 꼭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변화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셔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듯 참으로 놀라운 본질적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무엇인가를, 즉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준비의 핵심적인 어떤 사항들을 아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친히 몸을 굽혀, 심히 타락해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한 사람을 건져 올려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은 가히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요한복음 3:16).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본질 중 그분의 빛 되심과 사랑이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를 일부러 무시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한 범죄를 간과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죄를 심판하고 벌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죄악된 사람들을 위한 구속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렇듯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사 세상의 구세주로 삼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다 묘사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충만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고, 그로써 자신의 마음 속에만 비밀스럽게 간직하셨던 인류 구속의 목표를 선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그분의 마음과 소원과 사랑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은 진정 놀랍고 고귀한 일이지만, 누구나 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우리)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구절이 되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만 안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호의적이던 자들도 하나님이 애정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았습니다. 이는 성경 계시의 전체적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오로지 한 나라 이스라엘 과만 엄숙하고 결속력 있는 언약을 세우신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신명기 7:7,8).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예레미야 31:3).

선지자들은 원대한 관점에서 미래를 예언했으며, 심지어 메시아의 능력과 영광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결단코 그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떨리는 음성으로 발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이 깊으신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과 생애와 수고와 마지막에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사랑 받는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완전하고 풍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품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품속에 언제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십니다! 그분만 그 사랑을 완전히 펼쳐 보이십니다!

사람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한일서 3:1)에서 “어떠한 사랑을”이라는 문구는 문자 그대로

볼 때, 마태복음 8장 27절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와 같이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나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랑이 있는데 둘 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밖으로부터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히 표현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이 그분의 일생, 희생적 죽음,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심 등을 통해 그 사랑을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 정의되는가, 아니면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됨으로써가 아니라 보여짐으로써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장미 혹은 장엄한 일몰 광경은 아무리 잘 묘사하고 분석해도 그 비길 데 없이 진기한 아름다움을 적절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 때 그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고 드러내는 아름다움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의 결과로 그 대상의 참된 특성과 가치를 알게 되어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함께 형제 된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지들, 인도자들, 장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명쾌한 용어로 정의하거나 묘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의 내림은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무한하심을 유한한 사람이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진술들이 여러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정의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각기 하나님의 특성의 일면만을 다룰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만 그분의 인격과 본질을 실례를 들어 우리에게 제시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정의할 만한 범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성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우리 눈앞에 경이로운 창조와 구

속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특성을 목상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찾아 나가는 대상으로 보는 종교들의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참된 ‘깨달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까지 찾아주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 우리의, 아니 나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누가복음 15:6). 이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셨습니까?”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언덕을 오르고 골짜기를 지나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십니다. “서둘지 않고 침착한 걸음으로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¹⁾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과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다음 그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향해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영혼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으며

1) R. 모팰트 가우트리가 지은 ‘대단한 연인’에서 인용했다(매우 귀중한 이 책에서는 프란시스 톰슨의 장엄한 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의 의미를 밝혀준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간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믿게 되며,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게 주님을 찾도록 강권하는데, 주님을 찾는다 함은 사람이 자신에서부터, 즉 “무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 ※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공의입니다.
- ※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통치하는 의미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 ※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

으로 요구되고 계획되고 공급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핵심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음이 제시될 때 이렇게 핵심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파멸의 원인은 흩어진 마음입니다.” 역시 옳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이들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 일...”(빌립보서 3:13: 한글 개역성경에는 ‘오직 한 일’로 되어 있음-역주)
핵심을 언제나 붙드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1. 가장 중요한 것—누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무엇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왜

주어진 촉박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인생은 금새 지나가 버리는데 죽음은 확실하고 죄는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십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에 이르도록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시다!

가장 놀라운 일

“아버지가 저를 보고…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20)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놀랍다!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 중 가장 놀랍습니다.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셨으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내 죄악의 깊은 부분까지 살살이 살피 꿰뚫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온통 담은 팔을 크게 벌려 나를 환영하셨습니다. 내게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셨고 영원히 나와 화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해버린 불신의 죄악된 마음을 따라 철저히 낭비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듯이 우리 역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에워싸인 바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비롯된 은혜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력하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하고 무능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사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로써 친히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자신부터 주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으며, 존중하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이사야 53:2,3).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을 드러내사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3).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끼시는 아들을 보내사 사랑스럽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은 놀랍다!

당자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인류를 축복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다함이 없는 기쁨이며, 우리가 얻은 바 영원한 축복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희열에 동참하는 복도 끼여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누가복음 15:6).

이렇듯 우리 안에 놀라운 회개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이윽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우리를 따듯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러한 회개의 기쁨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아는 지식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회개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즐거움 속으로 이미 들어온 까닭입니다.

존 A. 쇼트

2001년 3월, 홍콩의 S. A. R.에서

하나님의 마음

[일련의 그림들과 그 의미들]

(1) 사실-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림 1] 하나님의 마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한복음 3:16).

(이 그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1. 주목할 점 :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창세기 1:1).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요한복음 3:16: 우리말 성경에는 ‘이처럼 사랑하사’로 되어 있음).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으뜸가는 구절은 바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줄 아는 분이시며 이는 그분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애정 있는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다

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격체이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우리로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사랑으로 엮어지려는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2. 주목할 점: 하나님의 마음 - 사랑

하나님의 마음 - 한없이 넓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인류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 역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여부는 사람 각자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겨안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이

며,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 따위도 구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이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대하여 보여주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자 누구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있거나 선택될 자격이 있는 대상에 대한 도취나 애정이 아닙니다.

그 대상인 우리가 지닌 어떤 미덕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런 미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상을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데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사랑을 베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완전히 무가치한 대상을 향해 갖는 깊고 변함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신명기 7:7,8).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예레미야 31:3).

하나님은 의지를 따라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특징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처럼 즉흥적인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랑과 친교로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을 두고 의지적으로 그 대상을 택하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대상에 빠지십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26).

2.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8).

3.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21).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도 비할 데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비이기적이며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도 매우 진실하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도 흔들림이 없고 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어떤 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주목할 점 :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며, 빛과 사

량은 의로움과 거룩함 같은 하나님의 다른 특성들과는 상이합니다. 빛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밝음으로 인해 선포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 나누고 분리하는 빛은 모든 죄를 정죄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한편 죄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랑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애처롭게 방황하는 무지하고 잃어진 죄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이제 장엄한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충분한 희생과 구속과 구세주를 이미 제공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4).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에 놓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을 소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속전을 치러주셨습니다. 문은 열렸고 치러진 속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는 능력 있는 사역이며 모든 사람에게 효험이 미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드디어 풍성히 드러났으며,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유감스러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대함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장엄함과 광활함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이해력으로 그것을 흡족할 만큼 잘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편 8:3,4).

더욱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주목할 점 : 하나님의 마음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히브리서 12:29).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의 빛과 조화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소멸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신명기 4:11).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무엇보다 우선해서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

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거룩한 법을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의 잃어버린 상태와 죄인됨과 하나님께 값없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율법을 주실 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거룩한 법을 주실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이 영원한 슬픔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 영혼들을 위해 불타는 열정이여!

오! 솟구치는 동정심이여!

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여!

오! 활활 타오르는 불이여.”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가 8:7).

4. 주목할 점 : 하나님의 바깥쪽은 어두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

으시니라”(요한일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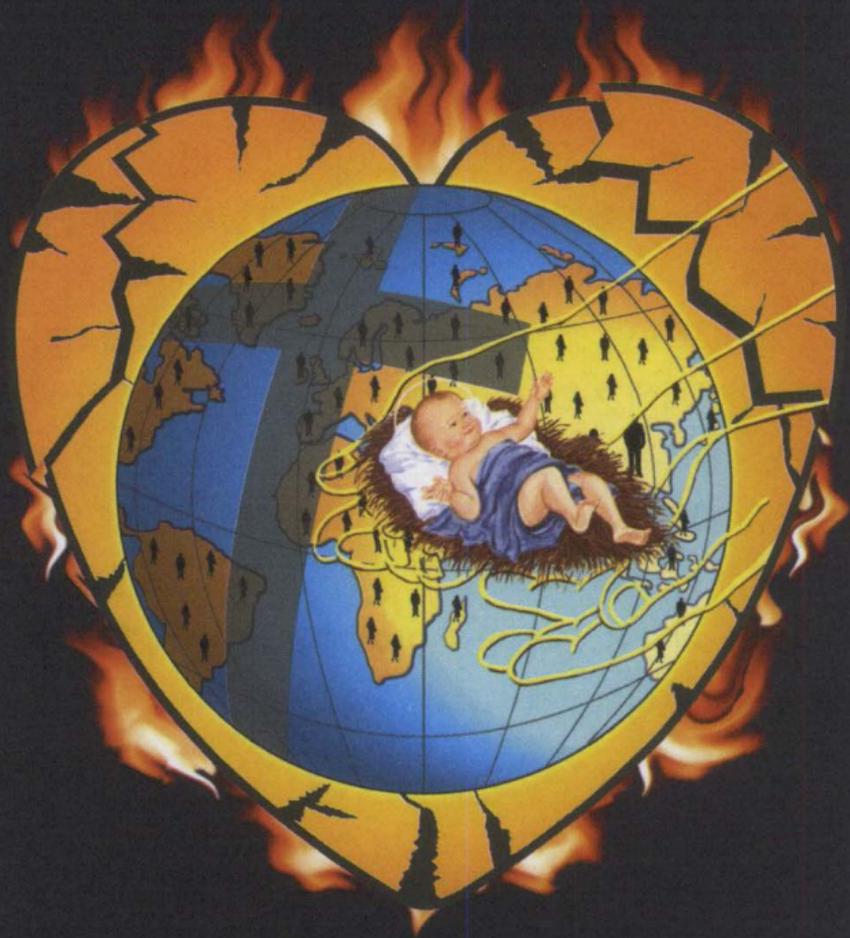
하나님의 바깥쪽은 온통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위해 영원히 예비되었습니다.

“

이제 당신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선포하십니다. 현재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는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2).

(2) 행동-하나님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림 2] 하나님의 선물

행동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이 그림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1. 주목할 점 : 선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니라”(누가복음 19:10).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1) 주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분명 인
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신 분이 얼
마나 위대한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은 심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 구절은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예외 없이 세상에 이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생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출생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의지를 따라 오신 것이며 이는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이 존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성경의 정확한 역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구절은 결코 주님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잠시 동안 시간 속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을 따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그의 시대에 편만하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

한다고 말했습니다(요한일서 4:3).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거했음을 부인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한복음 3:13).

(2)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주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3:13)고 하시며 단순하고 명백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요한복음 6:38).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사람들은 땅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땅에 흠어져서 땅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늘은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이 모두인 것처럼 여기며 땅에 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땅보다 더욱 멋지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사는데 익숙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으나 하늘 나라를 향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가 비추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늘이 땅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 순간이라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비가 1년이나 혹은 2년 동안 세상에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땅을 다스림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3) 그분은 왜 오셨는가?

무엇이 그토록 비할 데 없이 위대한 분을 땅에 내려

오시게 했을까요? 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친히 사람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그 후에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23).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다가오셔야만 했지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기로 생각하셨다면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번개로 멸망시킬 수 있으며, 홍수를 재현해서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창을 다시 열 수도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또다시 인류를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진동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렸던 지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의 지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의 피조물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세상에 임하심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가장 심오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냅니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잃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걱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으로 드러남을 보는데, 장래의 어느 날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

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극히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이사야 59:20).
기록된 말씀은 구세주의 오심을 약속했습니다.

2) “인자의 온 것은...”(누가복음 19:10).
주님이 오셨습니다!

3) “내가 다시 와서(will come)...”(요한복음 14:3).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교회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2. 주목할 점 : 하나님의 내밀어진 손

복음은 ‘포기 강요’의 메시지가 아니라 ‘받는’ 메시지
임을 유념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려는 사람
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까지
낮아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찾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마태복음 20:28)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도 참고하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0:28).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요한복음 4:10). 이 거야말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이는 분명 국적을 떠나 그리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있는 유일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겐지스 강물이 아니고 공자의 교훈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의 간청도 아니며 어떤 고행도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받아들여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선물입니다. 진실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

나쁜인 선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친구여, 만일 당신이 이 선물을 알고 믿고 드디어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온 생애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실 그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그동안 행한 모든 일과 현재의 모습까지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 앞에서 십자가에 못박으셨고 부활시키셨으며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주신 바 모든 선물을 진정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죄가 너무 무거워요. 그것들이 저를 억눌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록 당신이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죄를 범했다 해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

이 선물을 믿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잇따를 것이며 거룩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먼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선물을 주는 참된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동 상속인이 된 모든 자들에게만 주십니다”(J. N. 다비).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성경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것에 유익을 끼칩니다.

성경은 왜 유익한가?

우리의 폐에서 호흡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성경이 비롯되었습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순수하고 기록하며 건전하고 지극히 유익합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3. 주목할 점 :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한복음 1:18).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구유에 누으신 아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그토록 낮추신 사실에 놀라게 되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섬김과 돌봄과 봉사의 생애를 끝마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참되고 온전한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님은 죄가 없고, 누구와도 비교불가능하며, 부패할 수 없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독특하십니다. 그분도 나처럼 사람이지만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순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마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누가복음 4:34).

“독생자”라는 말은(요한복음에 다섯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세대와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됨과 관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위대함, 선함, 지혜가 있습니다.

※ 다른 위대함들은 하나같이 하찮은 것들 때문에 손상됩니다.

※ 다른 선함들은 모두 결함을 지녀 더러워지고 맙니다.

※ 다른 지혜는 언제나 어리석음에 의해 망쳐집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것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완

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완벽한 동정과 완벽한 겸손과 완벽한 온화함과 완벽한 침착함과 완벽한 은혜와 사랑이 거했습니다.

주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4. 주목할 점 : 부서진 마음

사람들의 복지 외에는 우주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 죄는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먼저 찢어졌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늘 상한 심령에게로 다가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이 좋습니다.

누기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성경 첫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창세기 6:6; 한글 개역성경에는 ‘마음에 근심하시고’로 되어 있음 역주)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줄 아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이사야 63:9).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땅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사랑과 수동성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틀림없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만일 고통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사람을 위해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9).

친구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시며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당신의 짐을 저주시고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임을 당신이 안다면 그것은 생애 최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 고통스런 마음을 가지심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A. H. 스트롱 박사가 속죄와 관련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그저 쳐다보고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들의 죄악 속에 잠겨 그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내는 사랑입니다.”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묵상할 내용이 참으로 많고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5. 주목할 점 : 십자가 앞의 하나님

아기가 십자가의 그림자 앞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으로서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살아 보이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철저히 희생적인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할 때 우리는 인류 전체를 향해 사랑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이 최악의 일을 행하는 장면을 목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마저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와 전에 자기를 가르친 연로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뵈었고 그 때의 경험담을 후에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러대는 상태였고 이에 젊은 선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토록 힘겨운 중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밝히 볼 수 있나요?’ 나이든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하면 안 되네. 우리는 상황의 어둠함에 시선이 쏠리고도 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만큼 강한 자들이 못 되지.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자신의 사랑을 놀랍게 선포하지

않으셨나? 그걸 목도한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사랑을 다시 의심할 수 있겠나? 환경이란 밀물과 썰물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법일세. 허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네.”(J. B. 니콜슨 2세).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거짓말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멋진 뭔가를 그녀로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고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불신한 결과로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매우 의심되고 불신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처하게 하신(거룩함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갈보리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사람의 무자비함과 잔인함과 불의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영혼을 버리시고 아끼

지 아니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죄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했는지 역시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증거입니다”(오스왈드 챔버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 둘 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로마서 5:20).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눈은 간혹 쳐다봅니다.

나를 위해 거기서 고난받으신

그분의 생명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는 내 가슴은

두 가지 기이한 일을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기이함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무가치함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

으나 이제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한일서 4:9).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J. 데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쫓 빼놓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의미 없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는 처사는 옳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분명 그리하지 않았습니다”(‘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쯤에서 반복하여 강조함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약속-하나님의 약속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림 3] 하나님의 약속

약속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이 그림은 우리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붙들어야 할 약속을 묘사합니다.)

1. 주목할 점 : 못들과 보혈

죄는 대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고통스런 사역의 효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미칩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

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12:13).

주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은 우리에게는 본이요 하나님께는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희생도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개개인을 깨끗하게 하려고 흘려졌으므로 우리 각자는 반드시 그 보혈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되고 제거됩니다.

주님이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선 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보신 까닭이요, 다음은 우리 죄의 공개적인 사면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 피와 죽음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와 죽음과 희생을 요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이며, 죄인들은 죄의 값으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속죄를 꼭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

우리는 이 주님의 피로 죄용서함을 받고 구속을 얻었으며 그분의 피는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

천국 도성의 열두 문은 진주문입니다(상처 입은 주님 옆구리의 소산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로 인해 천국은 드디어 우리에게 열리어 말았습니다.

구세주의 옆구리를 찌른 창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누군가 무척이나 탁월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구세주의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셈입니다.”

2. 주목할 점 : 인간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 회개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덕택에 죄인들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권고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음과 하나님은 옳으심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마침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 리이다”(시편 51:17).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자기의 죄

와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설교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치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이사야 61:1).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5).

“우리 마음은 우리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마음과 사랑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도록 지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1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다윗은 그분

에게 간청할 수 있었으며, 그 열 가지 간청을 하는 와중에 다윗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상한 심령이 되어 주께서 멸시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음은 깨어질 때 최고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상한 심령입니다.”
(S. E. 엘피크)

언제이던가 혹자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들과 함께 내 마음도 그렇게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마음이 깨어진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표본이 되어 그 마음을 알리는 막중하고 고귀하며 온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로마서 5: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후서 3:5).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변치 않는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시되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3. 주목할 점 : 십자가를 붙잡는 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오직 우리의 반응 능력을 발휘해 회개하고 믿을 때에야 비로소 그 선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신자라면 누구나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랑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마음이 움직이면 발걸음 역시 자동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필적할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요한복음 5:23)는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안 될 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

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23).

이 성경말씀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길은
극소수만이 찾아드는 좁은 길이며, 많은 이들에게 십
자가와 죽음과 피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진 상태에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
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
니라”(마태복음 7:13,14).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고난을 통과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
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포함되며, 주님을 믿으
면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라고
자신이 깨닫게 된 바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믿음

으로 ‘붙잡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붙잡음’이란 단순히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면 공개적으로 심판 받아야 했으며 사형장소인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했을까요! 그 십자가 처형은 비공개로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끄러움이 드러났고 공개되었으며, 사실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를 믿고 있고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믿음이 그런 믿음과 다름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은혜는 비할 데 없이 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거짓 없이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도께 두었을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또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로마서 10:9).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의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케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우리 마음을 다루실 때조차 하나님의 방식은 신사적이며 세심한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에 의해 제자를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존중하시기에 거칠게 침입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폭군이 아니십니다.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확신에 차게 된 후 그 다음 그의 의지까지 기꺼이 동의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믿음은 이렇듯 전 인격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을 경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지한 처사일 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에서 우리는 머리보다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익명의 전도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 땅과 하늘의 주되신 분입니다.

세상을 : 죄와 쾌락으로 미친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주셨으니 :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 오,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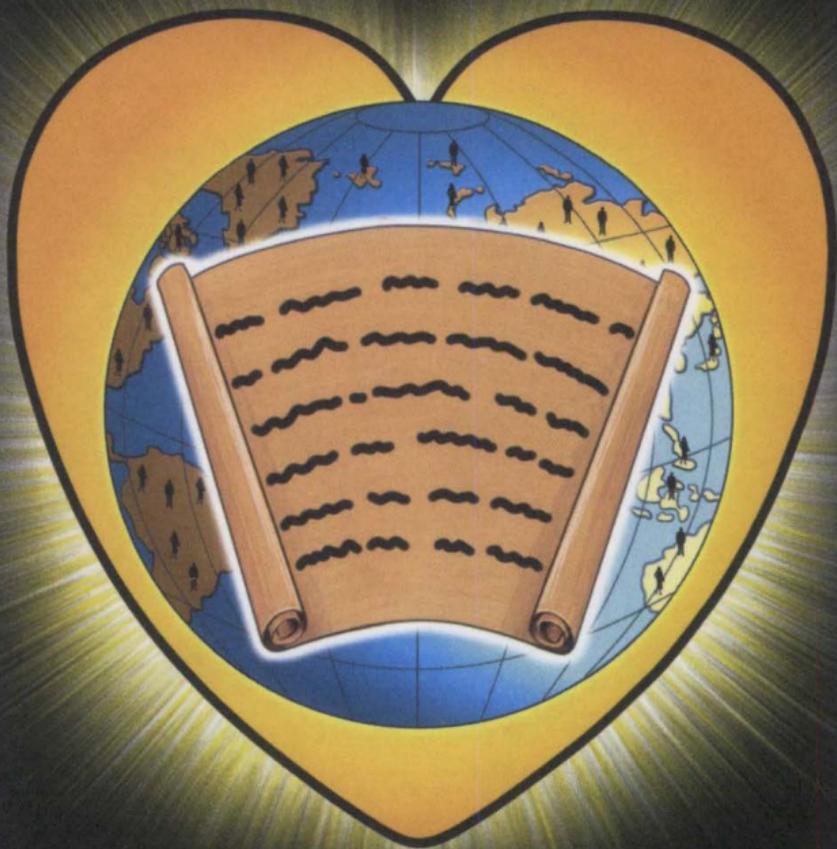
저를 : 의롭고 옳으신 주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마다 : 단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 죄 속에 잃어진 상태를 벗어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4) 영광-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림 4]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이 그림은 영광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신자에게 미치는 영광스러운 모든 결과를 보여줍니다.)

1. 주목할 점 : 영원한 생명과 영광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며, 단순히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전에는 소유하지 못하다가 새롭게 받게 된 실질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 등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사람, 정확히 말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축복을 받든지 영원히 슬픔을 당하든지 어쨌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질과 단순히 영원히 존재함 사이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몇 가지 차

이점이 있습니다.

- ※ 사람은 타인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데 이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0:28).
- ※ 영원한 생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확실합니다(요한복음 3:15; 3:36; 4:14; 5:40).
- ※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요한복음 6:53; 에베소서 2:1).
- ※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을 내 현재의 소유로 모셔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그분으로부터 나올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영생은 생명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의 문제뿐 아니라 주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는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일서 5:1,12).”(P. A. B).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명확히 증거합니다. “영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내용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죄인이 믿음을 가져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고요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복된 안식을 누리며 현재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2. 주목할 점 : 생명의 책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죄인이 거듭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탁월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소유

하자마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누가복음 10:17).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누가복음 10:20).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그들의 능력 있는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의 동역자 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로 인사했습니다(빌립보서 4:3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히브리서 12:23)를 언급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다섯 차례 그리스도를 맡아들로 표현하는데 이는 그분이 새로운 무리를 시작하셨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라면 이 장자의 교회에 속했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요한계시록 3:5). 우

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선명히 새기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뒤편 지옥임을 읽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요한계시록 20:12,15).

요한계시록의 그 다음 장에서 동일한 기자는 천국 도성을 묘사하면서 이런 엄숙한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요한계시록 21:27).

생명책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당신은 이 저자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아니면 기록되지 않든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국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를 확실히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3. 주목할 점 : 지극한 암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멸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행하게'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혹 어두운 조명의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읽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불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 보통은 웨이터의 이러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당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두움이 당신을 영원히 둘러쌀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은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만약 당신

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찌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넓은 길로 들어선 많은 이들에게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당신도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 즉 불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베드로후서 3:7).

만물이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요한복음 3:16).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백보좌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론 대소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뭇에 던지우더라”(요한계시록 20: 14,15).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자는 비록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그에게 충만히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접촉하는 수많은 이들은 불신의 상태로 이 땅에서 불만족과 불평과 불행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신실한 창조주요 축복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런 삶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된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모든 자비하심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평온한 마음으로 확실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 구름을 통과하고 온갖 문제들에 직면하여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

는 시기도 있을 것이지만, 신자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친구여, 당신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을 위한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분은 당신의 친구, 당신의 구속자,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자 뜻을 굳히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생각이 없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넓은 길로 내려가는 불신을 계속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은 자라면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당신 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로 소중한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에 걸쳐 당신이 빛나가지 않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교제의 마음과 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열왕기하 10:15).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열왕기하 10:15).

마음이 진실하면 손을 잡자는 이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참된 교제에 있어서 거짓 없는 마음과 내밀어진 손은 늘 연관됩니다.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이런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온 생애는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진실할 것이며, 그로 인해 손을 마주잡는 교제는 매우 진실하고 참된 마음이 오가는 중에 유쾌함을 느끼게 하고 서로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편 1:33편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과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정심과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생각은 악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전파하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래 전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지금까지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얻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야고보서 4:8).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

마음을 분노와 악독과 시기와 투쟁과 분쟁과 비방과 불유쾌한 일체의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 너무나 쉽사리 흐트러지며 빗나가므로,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순수하게 선택권을 행사할 때에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 ‘순수한 마음으로’가 한글 개역성경에는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음-역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소유했음을 발견하며, 이 보물

때문에 우리가 지닌 소유는 빛이 바래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관된 결과는 이 보물이 그들을 어김없이 순례자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에 경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대양을 계속 여행함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J. N. 다비가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한 보화는 나로 하여금 순례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부분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짙막한 생애를 살다 가는 우리가 드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양 중 잔물결들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얼마나 달콤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알게 될 때가 오면 그 순간 우리의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과 하늘과 영원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거대한 사랑의 파도들로 넘실거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개인적인 분량대로 우리가 맛을 보긴 했지만, 영원토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

이와 깊이와 높이를 탐구하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놓친 인생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리는 존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3:1~3).

신학을 배우러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꼭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4:9).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O. 로완이 지은 멋진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보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주님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집중적으로 살펴왔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왔다면 당신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의 박동 소리”가 어떠한지 느끼고 사로잡히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의 박동 소리”에 맞춰 걷고 뛰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의 동정의 마음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독자여,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

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의 박동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매우 빈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동정의 박동 소리를 따라 살고 사랑하며 위를 올려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에 영원히 거할 그분의 애정과 우정을 큰 기쁨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함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시편 94:19).

당신은 저를 기뻐하셨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어두움 속에 머물던 저에게
그런 저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시편 18:19).

그래서 저 역시 당신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복스러운 성령님의 모든 사역으로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편 37: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그분을 찾도록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처를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어거스틴).

유한한 것에서는 참되거나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자연”과 “뉴에이지 운동”의 가르침 따위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나, 자연은, “멋진 야외 풍경”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을 피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위로해주거나 동정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피난처와 끊이지 않는 만족함을 영원토록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가슴뿐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에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채로 등장하며, 이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싶어 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의 마음에는 덩굴손들이 들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둥글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생명을
제 속에 나누어 심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로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집 없는 미아 신세로 전락해 불쌍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이 책을 이제까지 읽어온 당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동시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존 A. 쇼트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시편 78:72).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고요한 안식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죄의 시달림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달콤한 위로를 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우리 구세주를 만나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오! 예수님, 복스러운 구속자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보내져

우리로 당신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보다 가까이 갈 그 순간을.

(C. B. 매카피; 1866-1944)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 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사, 죄인 되고 잃어버린 바 되고 저주 아래 놓이고 타락해버린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을 : 죄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며 그분의 따뜻한 포옹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 검은 죄로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해드렸던 우리를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다가오셨는지 어떠한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 주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며, 이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